

지역 매아리

부안군, 겨울철 도로 설해대책 추진

부안군은 겨울철 원활한 교통소통과 군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하려고 내년 3월 15일까지 도로 설해대책을 본격 추진. 군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군은 지리적 특성으로 매년 많은 눈이 예상 되는 만큼 폭설 및 노면 결빙에 대비해 각종 제설차 및 장비 점검과 134명의 제설인력 등으로 제설시스템을 구축하고 한발 앞선 제설작업으로 교통부족과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군은 관내 고갯길 및 위험도로 600여 개소에 모래주머니 8000포, 10개 노선에 적 사탕 77개소, 8개 노선에 결빙위험도로 안내표지판 15개소를 설치했으며 덤프 7대, 굴삭기 1대, 1톤 트럭 2대, 트레일러 12대 등 각종 장비 147대의 정비·점검을 완료했다.

부안군 관계자는 "설해기간 동안 강설로 인한 군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군민들도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 우기 운동 적극 참여와 제설작업을 방해하는 도로변 불법 주차 금지에 적극 협조해 함께 눈치 우기로 더 행복한 부안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안·이옥수기자

부안해경, 지역병원과 업무 협약

부안해양경찰서(서장 박상식)는 21일 민간해양구조대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부안해양경찰서 1층 회의실에서 지역병원과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날 업무협약은 관내 지역 성모병원을 비롯한 해상병원, 21세기 병원 고창 종합병원에 대하여 업무협약을 맺어 해양사고 발생시 적극적인 수난구조 활동을 해오던 해안진 확보에 힘쓰는 민간해양구조대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을 제고하고 민간구조세력 활성화를 위해 기획되었다.

협약체결을 통해 '민간해양구조대원 증'을 소지한 164명(변산파출소 104명, 위도파출소 23명, 고창파출소 37명)과 배운자들은 지정병원에 병원에 올 경우 내부자침에 따라 양질의 병원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병원관계자는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지역 민간해양구조대의 사기와 건강을 증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식 부안해양경찰서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적극 추진해서 국민을 위해 같이 헌신하는 민간해양구조대의 사기진작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기자

# 옥정호 상수원 관리 만전

## 정읍시, 하수처리시설 추가 설치·수질모니터링 실시 등 추진

정읍시 시민들이 먹는 수도물은 옥정호 물을 칠보취수구에서 취수하여 응동 산성정수장에 보내 정수 및 소독과정을 거쳐 수도꼭지를 통해 각 가정에 공급되고 있다.

최근 대두되고 있는 정읍시 상수원에 대한 물관리 대책은 현재보다 더 나은 수질관리를 위하여 산내면 옥정호 주변지역 황토마을 외 7개 마을은 마을하수도설치사업이 완료되어 현재 운영되고 있으며 2018년에는 백필 등 3개 마을에 추가로 하수처리시설을 추진하고 있고, 능교마을 외 4개 마을에 대하여도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산외면지역 오염원의 차단을 위하여 산외면 소재지 등 9개 마을에 대한 공공하수도설치사업이 완료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누락된 마을에 대해서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정읍시 관계자는 밝혔다.

이 외에도 정읍시와 임실군에서 옥정호 상수원의 수질오염 감시를 위하여 지킴이등 44명이 순찰활동을 하고 있으며 오염 요인 뿐만 아니라 쓰레기 등 정화활동도 추진하고 있다.

옥정호 상수원의 수질관리는 매년 새만금지방환경청과 전라북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수질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수질검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

앞으로 운암취수구에서 유입되는 오염원 차단을 위하여 오탁방지막 설치 등에 대한 대책도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 중에 있으며, 상수도 원수를 취

수하는 도원천의 관리는 취수구 상류 주요교양이래 시민들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급원에 헬스를 설치 시민들의 하천출입을 통제하고 주변 축사 등 수질오염 대상시설물에 대하여도 수시로 순찰하여 지도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정읍시 관계자는 "옥정호 상수원은 시민들이 먹는 수도물의 원수를 제공하는 중요한 자원으로, 옥정호 수변을 이용한 레저사업 등에 대해서는 정읍시에서 이미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듯이 앞으로도 시민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나서 나갈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질 좋은 수도를 공급을 위하여 한국수자원공사와 정읍시에서는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 고창군, 겨울철 축사화재예방 총력

## 점검반 편성·누전차단기 설치·옥내·외 배선상태 등 집중 점검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겨울철을 맞아 축사화재예방을 위한 점검반(4개 반/12명)을 편성해, 축사화재의 주요 원인이 되는 누전차단기 설치 및 작동여부, 정격 용량의 퓨즈와 규격전선 사용여부, 옥내·외 배선상태 등을 집중 점검하는 등 적극 나섰다.

21일 군에 따르면 날씨가 추워지면 축사 난방기 사용이 늘어나고 화재의 우려도 커짐에 따라 경각심을 고취시켜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도록 화재예방 서한문과 축사화재예방요령 리플릿을 농가별로 발송했다.

최근 3년간 고창군 축사전기·화재 발생건수는 33건이며 노후 된 축사 화재가 발생하기 쉽고 화재발생시 재산상 피해발생액이 커서 각별한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

축사 화재예방을 위해서는 ▲누전차단기 설치 및 월 1회 이상 점검 ▲정격용량의 퓨즈와 규격전선 사용 ▲과부하를 발생하는 전기기구는 반드시 한 개의 콘센트에 한 개의 기구만 사용 ▲가축재해보험 가입(보험금 지원) 홍보 ▲소화기 비치 및 점검 등이 필요하며 화재 발생에 대비해 긴

급 연락망을 유지해야 한다. 박우정 고창군수는 "고창군의 축사소독은 4천여원으로 농업총소득에 중 30%이상을 차지해 지역경제의 핵심 성장산업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며 "피해 줄러 이룩한 축산인의 소중한 재산이 화재발생으로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는 축산농가들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행정에서도 축사화재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홍보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창=김영식기자

## 정읍시농업기술센터, 품목별 연구회 워크숍

정읍시농업기술센터가 지난 20일 정읍시 제2청사 대강당에서 품목별 연구회 워크숍을 가졌다.

워크숍에는 37개 품목별 연구회 임원과 회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워크숍에서는 김용환 대표가 강사로 나서 특강을 진행했다. 김대표는 이날 "농업에 대한 창의적인 시각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급변하고 있는 농산물시장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며 전략적 마케팅 전략을 제시했다.

이러 기술센터 관계자가 2019년 1월 1일부터 모든 농산물을 시행될 예정인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농약 안전성검사 부적합 판정 시 출하연기, 용도제한, 폐기,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게 되는 만큼 농약 사용 시에는 포장지 표기 사항과 작물보호 지침서를 반드시 확인한 후 농약별 등록된 작물과 적용 대상에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재영 정읍시농업기술센터장의 특

강도 진행했다. 김소장은 이날 '인문학과 정읍역사 바로알기'를 주제로 정읍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게 설명, 호응을 얻었다.

이날 김생기 시장은 "4차산업 혁명에 대한 정읍농업의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며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에 맞춘 농산물 선택과 집중으로 정읍농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워크숍에서는 수확연구회 최명환 사무국장이 우수품목별농업인으로 선정돼 전북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정읍=김대환기자



**농업인과의 소통·공감의 장 마련**  
**부안군, 농담(農談) 랩 토론회 개최**

부안군은 농업인의 생생한 목소리를 농정현안에 적극 반영하려고 구성된 농촌 일자리센터 개소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등 농담(農談) 랩 토론회가 지난 20일 개최됐다.

농담(農談)랩은 주요 농정현안에 대한 농업인과의 소통·공감의 장 마련을 통해 '보람 찾는 농민, 재밌는 농업'을 실현하기 위해 농업인, 공무원,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된 토론회이다.

이날 토론회는 기존의 보고회 형식에서 벗어나 농업인과 공무원 등이 심리농정 관련 현안에 필요

한 사업 발굴 및 제도 개선 등 주요 농정현안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수렴을 위한 정책 연구로 이뤄졌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농민이 부족한 영농일손 확보를 위한 방안 모색으로 농촌 일자리센터 구축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등에 대해 열린 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산계 한국여성농업인 부안군 연합회장은 "앞으로 농담 랩 등에 적극 참석해 새로운 농정정책 발굴에 앞장서 농본도시 부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기자

**정읍시-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 중점관리 호소수 수질관리 협업체계 구축 협약 체결**

정읍시와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는 지난 20일 중점관리 호소수의 수질 관리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MOU 체결은 정읍지역 내 중점관리 대상 농업용 저수지 4개소 '괴동(감곡), 석우, 만수(고부), 지선(임암)'에 대한 수질보전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양질의 농업용수를 공급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꾀하고 농업 용수원의 오염을 예방한다는 취지다.

협약에 따라 시는 중점관리 호소수 상류 유역 오염원 감축과 유입 하천 수질 개선 환경기초시설 확충 등 유역 오염원 개선과 오염 물질을 낮추는데 주력한다.

또 한국농어촌공사는 중점관리 호소수 오염 원인 파악과 수질 개선 공법 개발 및 적용, 수질 개선 시설 유지 관리, 저수지 정화 활동 등에 힘을 쏟게 된다.

김생기 시장은 "가뭄 대비와 극복을 위한 농업용수 확보도 중요하지만 양

으로는 농산물의 양적 생산보다 질적 생산을 위한 농업용수 수질 관리와 개선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자체와 공·사간 협업체계가 중요하다"며 "그 중에서도 물리(蒙利·저수지나 보 따위) 수리시설의 혜택을 입은 민들이 농업용수 수질 개선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이를 알리는데 적극 나서달라"고 관계부서에 당부했다.

시와 한국농어촌공사는 MOU 체결에 앞서 수해지역 농민대표, 상류유역 주민대표, 저수지 시설관리원으로 수질환경 보전회를 구성했다. 보전회는 앞으로 협업체계를 구축해 중점관리 호소수 수질 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농업용 저수지와 답수호의 수질관리·보전을 위해 수질기준 IV등급을 초과한 호소를 중점관리 호소수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전북도 내에는 정읍의 괴동 등 4개소를 비롯 모두 21개소가 지정·관리되고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뽕주를 선택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로운 기품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걸림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번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열매가 익어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짙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GIFT SET 1호** | 750ml 2ea, 잔 2ea/16% | **GIFT SET 2호**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 **GIFT SET 3호** | 750ml 1ea/12% |

**GIFT SET 4호** | 500ml 2ea, 잔 2ea/12% | **GIFT SET 5호** | 375ml 5ea/13% | **GIFT SET 6호** | 500ml 장병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 **GIFT SET 일반** | 375ml 2ea/13% |

TEL : 063-584-9960  
www.gangsanwine.com